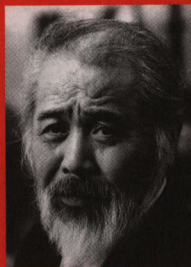


Originality of Asian Identity

에쿠양 겐지
GK 디자인그룹 대표

Kenji Ekuan
CEO, GK Design Group

바이오그래피 | 에쿠양 겐지는 1920년 태어났으며 1955년 동경예술대학(National University of Fine Arts and Music in Tokyo)을 졸업했다. 1957년, 현재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GK디자인그룹 모체인 GK산업디자인협회를 설립했다. 그의 디자인 관련 활동은 기포만 간장 테이블용 용기에서부터 야마하 오토바이, JR 아키타선에 운행되는 신규 고속철도 "코마치(KOMACHI)"를 비롯한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1970년에는 일본산업디자이너협회(JIDA)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73년에는 ICSID의 73년 도쿄총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 후, 1975년에는 ICSID 회장에 선출되었다. 1989년, 나고야에서 개최된 세계디자인박람회 총책임자로 임명되었고 1999년에는 세계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인도주의 조직 "Design for the World"를 스페인에 설립하고 조직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GK디자인그룹 회장으로 있으며 일본디자인교류협회(Japan Design Foundation)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수의 국제 디자인 관련 상을 수상했으며, 거의 반세기 동안 국제 디자인 세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Biography | Kenji Ekuan, born in 1929, graduated from the National University of Fine Arts and Music in Tokyo in 1955. 1957, he founded GK Industrial Design Associates, which later became the GK Design Group, the chairman of which he is today. His design activities encompass wide area ranging from household articles like Kikkoman soy sauce table dispenser to Yamaha motorcycle and a public transportation—such as a new bullet train for JR Aki-ta line, named "KOMACHI". Elected to the president of Japan Industrial Designers' Association(JIDA) in 1970. In 1973, Executive chairman of the Japan Organizing Committee for ICSID '73 Kyoto Congress and elected to the chairman of ICSID in 1975. In 1989 Appointed to the general producer of the World Design Exposition in Nagoya. In 1999, Established a humanitarian organization of world design professionals "Design for the World" in Spain and appointed to its chairman. Currently representing GK Design Group as the chairman, and acting as a board member of The Japan Design Foundation and many others. Awarded many design related international awards. For almost lasts a half century, he has been active in international design arena.

서구에서 일어난 현대화 물결이 아시아를 강타한지도 어느덧 2백 년이 넘었다.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 토착 고유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생활양식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아시아의 현 위치를 조망할 때 관광자원으로 장려해 온 전통 유산, 음식, 종교의식 등 전통문화 단편을 제외하면 아시아의 본질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런 문화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잔재로 여겨질 뿐이다. 상황이 이러하데, 아시아 정체성을 주제로 글 쓰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아시아 국가에서 역동적 변혁이 일기 시작했다. 여기에 맞춰,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재규명하라 촉구할지 모른다. 또는, 서구식 현대화에서 완전 독립한다면 아시아에 대한 세계 인식 또한 바뀔지 모른다. 20세기 초, 서구를 의식하던 일본인 사이에는 아시아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필자가 볼 때, 명확한 자극이 되는 아시아 양심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필자 지식이 다소 부족한 관계로 아시안게임 참여 대상국 목록을 참고해본다. 이렇게 볼 때, 아시아는 상당히 광대한 지역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역시 뚜렷한 선을 그어 아시아 지역이라 규정하는 식의 범주화는 힘들다. 게다가 각 아시아 지역이 자발적으로 이 범주가 옳다고 말하며 스스로 제안하지는 않으리라. 차라리 서방 사람들에게 아시아 규정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현명하고 객관적일 것이다.

필자에게 아시아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젓가락을 사용하는 곳, 위구르를 포함한 주변지역, ASEAN 회원국, 인도 북부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이 아시아 범주에 속함은 분명하지만, 오늘날 일본인의 일상 생활에서 진정한 일본 고유의 관습을 찾아보기란 매우 힘들다. 일본인의 생활양식은 서구 생활양식과 거의 동일하다. 이런 환경에서 일본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은 사람들 일상 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일본의 특징적 문화를 찾아내고 직접 체험하려 한다. 피상적 관측만으로는 아시아 정체성은 물론 일본의 정체성조차 찾기 힘들다. 따라서, 필자가 지금까지 살아 온 일본의 견지에서 정체성을 찾아보는 것이 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필자의 고국인 일본에서 아시아를 찾는다는 의미도 된다. 민족학적 역사, 비교 문화인류학, 지리학에 의존해 아시아와 일본의 뚜렷한 특징을 찾아보려 한다.

아시아 각 지역 다양한 민족이 지닌 공통 관습, 사회개념, 문화 일부를 살펴본다면 모두 아시아인이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이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 한국, 중국 같은 동북아 사람들이 유럽인 앞에 선다면, 당연히 뚜렷하게 구분되는 골격과 외모 덕분에 서로를 아시아인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유교, 불교, 사무라이 윤리¹⁾, 일본 전통문화를 배우고 서구화된 교육 또한 받았다. 그리고, 한 명의 전문 디자이너로서 필자는 일본 견지에서 이 땅을 위한 디자인을 생각하라는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해 본다. 필자의 얼굴은 분명 아시아인의 얼굴이다. 어느 관점에서 보아도 서구 남자는 아니다. 게다가 누구보다 쌀과 간장을 좋아하는 일본인이다. 일본인으로서 일본 고유의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한국이나 중국 음식 또는 그 어떤 다른 민족의 음식에 대해서도 필자는 거리낌이 없다. 사실, 그런 음식을 볼 때면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When traveling from Japan through Korea and China, we can clearly tell wormed pace propagation of their cultural expressions. Architectural roof curves are good examples. Chinese deeper roof curvature becomes shallower through Korea and ends up with moderate curvature of beautiful Japanese style roof pleasing peoples' eyes. They are all linked on a straight line culturally and aesthetically.

More than two hundred years already have passed since the storm of modernization, derived from the West, started to blow in Asia. The modernization of peoples' lifestyle is rapidly taking place in almost all nations in the region to the degree indigenous originality is hardly seen. When we are trying to find where Asia is, it is nearly impossible for us to find it except as a part of traditional culture, some inherited traditional remnants, food and religious rituals alike promoted as resources for tourism industries. They are seen as mere forms of the past. Under such circumstances, is it possible to seek Asian identity as the theme of this writing?

Dynamic transformation has started in Asian countries now. Therefore our times might be urging us to reclarify the perception of Asia. Or complete independence from Western style modernization may change the world's view of Asia. In the early part of the twentieth century, there used to be another definition of Asia among Western-conscious Japanese. However, to me right now, there is almost no distinctively stimulating Asian conscience. So my regional knowledge of Asia is a little obscure so that countries listed for the Asian Olympic Games are supportive reference. That is an extraordinary wide area. However, it is still hard to categorize by drawing a line as Asia. And the category hardly seems to be voluntarily proposed by respective Asian regions. It may be wise and objective enough asking Western people about how they arrived at this definition.

Asian countries to me, supposedly mean Korea, Japan, China, where chopsticks are used, and their surrounding regions including Uigur, and ASEAN countries and northern part of India. Though Japan is a member of Asian countries in that category, it is very hard to find customs really unique to the Japanese in their current daily lives. Their lifestyles are almost the same as the Western ones. In such surroundings, foreign tourists traveling in Japan are enjoying digging up and experiencing characteristic Japanese culture lying in residents' daily living. So much so that not only Asian identity but Japanese identity are very hard to find by superficial observation. Thus, finding the identity from Japan where I have been living in is only way I can try. It also means to find Asia in my own Japan. Only intellectual reference such as ethnological history, comparative cultural anthropology, and geography will be what I can rely on to find distinctions of Asia and Japan.

If I can glance over a part of customs, social notions and cultural build up in common among peoples of the regions, then I can share some sense with them as an Asian. Of course if people from northeastern Asian

regions, namely Japanese, Korean and Chinese, stand in front of Europeans, we are then able to clearly identify each other as an Asian with unmistakable phrenological look.

Born and raised in Tokyo as a Japanese, having been taught Confucianism, Buddhism, Samurai ethics^①, traditional Japanese culture, Westernized Education, I am currently setting a mission for myself as a professional designer to think of design for the earth from Japan. My facial expression is unmistakably Asian. Definitely not a Western man from any point of view. Moreover, I am no doubt a Japanese who evidently likes rice and soy sauce very much. Being a Japanese native, my taste buds naturally incline toward traditional Japanese cuisine however that does not stop my fascination to other ethnic foods such as Korean or Chinese. Actually they tend make me feel at home.

Japan had been earnestly influenced by Korean and Chinese civilization for two thousand years. By traveling from Japan through Korea and China, one can clearly witness the manifestation of differences in cultural expressions. Architectural roof curves are good examples. Chinese deeper roof curvature become shallower through Korea and end up with moderate curvature of beautiful Japanese style roof pleasing peoples' eyes. They are all linked on a straight line culturally and aesthetically. In the Shosoin Warehouse(built in eighth century for the emperor's use) in Nara City even artifacts of Persian origin, brought through the Silk Road thirteen centuries past, were found.

The evolution of civilization had brought variation in cultural expressions, and people had tried to fulfill their spiritual culture on their own. Japan once had its humble yet unique culture called Jomon Culture^② about ten thousand years ago, but it had experienced its transforming history influenced by the culture originated in Eurasian continent in all-around aspects. Japan is located along the very eastern edge of the Eurasian continent. I feel strong closeness, as a Japanese, to the perpetuity of Asian culture lying deep in the Asian regions with their configur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hape of a cultural watering pot as if cultures are flowing in.

Characters of its own were yet to appear in the early centuries of Japan, classical verbal Japanese was expressed in Chinese characters, and it cultivated the foundation of Japanese literal culture. Chinese characters were transformed into Japanese phonetic symbols. Chinese poems were changed into the style of 31-syllable Japanese odes^③ and haiku^④. Along with those

일본은 2천 년 동안 한국과 중국 문명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에서 한국을 경유해 중국까지 돌아본다면, 삼국의 문화 표현 전파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건축에서 지붕 곡선이 좋은 예다. 중국의 깊은 만곡은 한국에서 완만해지고 일본에 이르러 사람들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아름다운 현대식, 일본식 만곡으로 마무리 되었다. 삼국의 곡선은 문화 및 미학 차원에서 모두 연장선 상에 있다. 8세기에 천황을 위해 건축된 나라시 쇼쇼인 소장처에서 13세기 전 비단길을 통해 유입된 페르시아 물건도 발견되었다.

문명 진화는 문화표현에 다양성을 물고 왔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정신문화를 추구해왔다. 1만년 전, 일본은 소박하나마 고유한 조몽 문화⁹가 있었지만 유라시아 대륙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든 면에서 변화를 겪었다. 일본이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단에 위치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아시아 지역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아시아 문화의 연속성에 친밀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에서 한반도는 마치 문화를 쏟아내는 물조리개(watering pot) 형상을 하고 있다.

초기, 일본은 자체 문자가 없었다. 옛 일본은 중국 문자를 사용해 구어를 표현했는데, 이것이 일본 문자문화의 기초가 되었다. 중국 문자를 변형해 일본 표음문자를 만들었다. 중국 시는 31 음절로 구성된 일본 시⁹와 하이쿠⁹로 바뀌었다. 이런 전달매체 변화와 함께 정서 또한 큰 영향을 받았고 정신영역 또한 한층 넓어졌다. 일본의 정서 표현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었다. 최초의 일본시 모음집인 망요슈(만엽집(萬葉集)⁹)는 당시 일본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일본어를 중국 문자로 번역해 표기할 때 그나마 조금 이해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및 중국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국제화 된 중국어만 사용되었다. 당시로서는 불교 승려나 일부 지식인만이 한국 및 중국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한편, 일본 민족은 한국의 도움을 받으며 자국 문화를 양성해 왔다. 특히 신기술 도입을 통해 일본 자연환경과 인간관계에 일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실 일본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고도로 발달한 중국 문명이었다.

그렇다면, 중국 문명이 유입되기 전 일본은 어떠했을까? 일본은 초목이 잘 자라는 풍부한 자연과 온화한 기후를 지닌,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땅이었다. 풍부한 자원을 지닌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에 생활 여건도 혹독하지 않았다. 하지만, 산과 바다가 포효하면서 자연에 의존했던 일본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자연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며니즈미라 부르는 것이며 심령주의의 시초였다. 산, 바다, 들을 비롯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각자 신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자연을 느끼고 자연을 바라보는 견

해는 일본 고유의 의식으로 자리 잡으며 문화적으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자신들 믿음에 따라 사당을 짓고 심지어 추앙 받은 인간의 이름까지 사당에 모셨다. 일본인들의 자연경의 정신은 예술문화에서 농업 및 공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삶에 영향을 미쳤다. 신성한 나무 둘레에 친 줄이 바로 이런 인식에 대한 상징이었다. 일본인들은 물, 산, 나무, 풀에 깃든 모든 신에게 경외심을 지녔다. 곧게 자란 백 삼나무는 신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꾸밈없고 곧은 건축표현 재료로 사용되었다. 삼나무는 일본 건축이 결국 신성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건축 표현은 한 민족의 표현이라 주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글로 표현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시각적으로 호소했을 뿐이었다. 이런 환경에, 6세기경 한국을 통해 부처 형상과 문자가 도입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은 엄청난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일본 문화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한 국가가 문명을 수용할 때는 그 국가의 지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의 지리적 입지와 형상은 한국과 중국 문화를 수용하기에 용이하다. 이러한 문화적 조건 덕분에 일본은 힘을 발산하는 감성을 갖추고 사물(things and matters)을 낳을 수 있었다. 일본은 군도라는 점 외에도 땅 자체의 화산성 때문에 분지가 많은 곳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는 외부 침략자의 공격을 막는데 이로써 공동체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분지 지형은 세계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관점을 일본인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이 관점은 큰 그림을 포착할 수 있는 감성을 의미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별이 투영된 물 한 잔을 마시며 전 우주를 몸 속에 품는 상상의 세계로까지 관점은 확대되었다. 이것이 한층 발전한 것이 다도 정신이다. 전적으로 개념적인 문제이지만, 결국 우주를 노래한 중국 시의 장대함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 지형과 자연환경에서 유래한 관점은 후지산과 벚꽃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일본의 정신적 정체성으로 승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의 경우 일차적인 문화창출 조건은 꾸준하고 완만한 속도의 농경 생활양식이며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며 후지산과 벚꽃이 지닌 우아함과 활력을 지켜보는 동안, 마치 활성효소가 피어나듯 모종의 살아있는 정신이 빚어졌다. 정신의 창조라 봐도 될 것이다. 학자 모토 오리 노리나가(1730-1801)⁹는 자신이 쓴 유명한 일본 시에서, “무엇이 오랫동안 전수된 일본의 전통 정신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침 태양 아래 활기차게 피어있는 벚꽃이라 답해야 하리라”고 노래한다. 이 시는 수 세기동안 일본인이 사랑해 온 이상적인 일본 정신을 묘사한다. 정서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시이기 때문에 이 정신이 외국인에게도 어느 정도 이해되기를 희망해 본다. 하지만, 정신을 맑게 하는 듯한 이 활력을 벚꽃과 사무라

changes in media, even the context of emotional change was greatly influenced and spiritual realms were widened as well. Thus the ways of expressing Japanese emotion was settled. The first grand edition of Japanese poetry "Manyoshu(759A.D.)^⑨" was a supreme representation of Japanese emotion at the time. While in China, Japanese language was naturally not understood, and only Japanese translated and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was barely understood. Therefore only internationalized Chinese had come to be applied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and China. So that only Buddhist priests or intellectuals could communicate with Korea and China. Meanwhile Japanese by race had nurtured their own culture guided by Korean culture, primarily structured in its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relationships

supported by imported technology. However, in fact, the keynote of its culture was a highly advanced Chinese civilization.

Now, how had Japan been doing before Chinese civilization came in? Japan was an easy land for people to live in as having comfortable climate and rich nature with flourishing vegetation. People had no harsh living conditions, surrounded by the sea rich with resources. So that once the sea and mountains roared, Japanese who depended on nature were scared by them and tried to appease them. This was what we call shamanism and the beginning of spiritualism. This was the religion that people believed in, that mountains, seas, fields and all living things on earth have their respective deities. The way they felt nature, namely their view on nature became a perception unique to the Japanese and the view culturally influenced all realms. Peoples' belief led them to build shrines, and even enshrined revered persons' names. Their respectful mind toward nature influenced wide aspects of life ranging from artistic culture to the lower end of agriculture and craft. A sacred rope wound around a sacred tree symbolized such perception. They expressed their awe to every deity including water, mountains, every tree and grass. A straightly growing white cedar has made a direct source of a simple and straight architectural expression, and deities blessed it. To date it has indicated that the origin of Japanese architecture was with deities. Architectural expressions can be asserted as the expressions of a race. Such view on nature was seldom expressed in writing, and almost all of them were visually appealed. Into such environment, Buddha's figures and characters came from Korea in about the sixth century. That cultural influence was unfathomably big.

Let us take a look at another aspect of Japanese culture. A country's terrain, when it accepts civilization, is very important. Japan's geographical shape and position looks very easy for accepting Korean and Chinese cultures. And the archipelagic position surrounded by the ocean forced the culture to stay in the region. This cultural condition enabled the country to have power generating sensibility to bear "things" and "matters." In addition to be an archipelago, the land of Japan has many basins for its volcanic nature. Flats surrounded by mountains were advantageous for protecting inhabitants from outside enemies, and effective to build social order among inhabitants. The basin like terrains bore the view of the world distinctive to them. The view meant the sensibility capable of grasping the whole picture. The view even developed to an imaginary play, in great scale that gulping down the whole

*A country's terrain, when
it accepts civilization,
is very important. Japan's
geographical shape and
position looks very easy for
accepting Korean and
Chinese cultures. And the
archipelagic position
surrounded by the ocean
forced the culture to
stay in the region. This cul-
tural condition enabled
the country to have power
generating sensibility
to bear "things" and
"matters."*

이 정신에 친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영예로운 꽃은 벚꽃이며 가장 영예로운 사람은 사무라이이다.” 이 오래된 일본 속담은 일본인만 진정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토착 문화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표현이 지닌 의미는 엄청난 시간과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같은 문화패턴을 지닌 사회 사람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측면을 지니게 된 듯하다.

민족정신은 수 세대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에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또한 지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조건과 인간관계를 상상하지 못한다면 일부 아이디어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특정 시대의 정신을 이해할 때도 당시 주변을 둘러싼 모든 유형의 상황과 창조력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이 점에서, 전반적으로 일본의 자연주의 미학에서 비롯된 일본 고유의 조형표현 미학은 소박하고 솔직하며(simple and straight), 전 세계가 이해 가능한 것이다. 일본

인들은 자신들 정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 했기 때문이다. 상기 언급한 고유의 일본문화 측면이 존재하고 중국의 웅장한 문화기반이 바탕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 고전미술을 접할 때마다 필자가 향수의 갈망을 느끼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 일본 문화 사이에는 심오한 무언가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 고대 역사 중, 필자는 공자(B.C. 551-479), 맹자(B.C. 372-328), 노자(B.C. 604-531)에서 시작해 25세기 동안 이어져 온 유교와 도교^① 가르침을 존중한다. 아니, 필자가 이 세 선생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현재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의 근본 정신세계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사상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중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이 중국 공산주의 이념이 낳은 결과라 불리긴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중국 정신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가르침들이 인간관계에 가져 온 질서체계는 수 천년간 이어져 온 독군 간 반목 역사를 거치며 엉망이 되었지만 현재도 여전히 실제 적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들이다. 논어^②에 대해 말하자면, 지성적 행동을 위한 기본 교재이자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서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디자이너로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지 말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디자인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다.

분명, 오늘날 중국 발전은 근면성실을 기반으로 한 공자의 논어가 기본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이 단일 정당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유교를 다시 도입하는 일에는 정치적 난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논어의 사상 만큼은 분명 중국 민족정신의 기반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무엇보다, 일상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예의가 의식주를 만들어내는 기본 태도에도 반영되었음이 분명하다. 공자는 사람들 사이에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미덕”, “정의”, “공손”, “지혜”, “신뢰”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완벽한 미덕, 정의, 공손, 지혜,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통해 주변 환경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순조로워질 때, 인간은 비로소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런 정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당시 사회조건을 제대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간관계와 사회 내 상호관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같은 맥락을 상당 부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에 대부분 기반을 두고 있는 사무라이 정신은 메이지유신(1867)^③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다. 사무라이는 참된 남자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 이 가르침을 믿고 또 받아들였다. 가르침에 제시된 참된 인간을 자

Although Unique

Japanese cultural aspects

exist and Chinese rhetoric

cultural base is at

the bottom, it is still very

mysterious that my almost

nostalgic longing

for Chinese classical arts

flaring up whenever

I come to contact them.

universe by drinking a scoop of water reflecting stars in the sky, and further led people developing the mind of a tea ceremony. Although totally conceptual, it might be largely influenced by the grandeur of Chinese poetry composing the universe.

Thus, views on many aspects, originated in its terrains and natural environment, had developed to the aspiration of Mt. Fuji, cherry blossoms alike, and they had sublimated even to the extent of Japanese spiritual identity. Primary conditions of Japanese cultural creation belong to those of steady and gentle pace of Asian agricultural lifestyle.

When we have been facing, generation after generation, such grace and invigoration of Mt. Fuji and cherry blossoms, some lively spirits have come to be brewed just like an active yeast fungus. It even can be seen as the creation of mind. There is a noted piece from a Japanese poem, by Norinaga Motoori (scholar, 1730–1801)^②, that reads “when you are asked what is the traditional and time honored Japanese spirit, it must be cherry blossoms vigorously blooming in the morning sun.” The poem describes the ideal Japanese spirit popularly loved by the Japanese for centuries. I hope that the spirit may be understandable to any extent even for a foreigner, because the poem visually portrays the emotion. Nevertheless, the invigoration almost like clearing up one’s mind might still be hard to understand for non-natives unfamiliar with cherry blossoms, let alone when it is compared to the Samurai spirit. There is an old Japanese saying “the best honorable flower are cherry blossoms, and the man of honor is a Samurai” is a typical expression of the understanding confined to mainly Japanese. It might be called an indigenous culture. Although it started with a single source, a meaning of a cultural expression, after traveling through tremendous time and processes, often appears to have incomprehensible aspects even for people in societies with common cultural patterns.

National spirit is a product of many generations and inevitably it is a delicate matter to fully grasp. Also certain ideas are hard to understand unless we are able to imagine the conditions of social and human relationships, provided some intellectual judgment is available. Also, ethos of certain times need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all kinds of surrounding situations and creativity of the times. To that point, aesthetics of formative expression unique to the Japanese, largely owing to their natural aesthetics, is simple, straight and understandable worldwide. The reason is that they tried to express their spirit in visual things. Although the above-mentioned unique Japanese cultural aspects

exist and Chinese rhetoric cultural base is at the bottom, it is still very mysterious that my almost nostalgic longing for Chinese classical art flares up whenever I come in contact with them. Something might be lying deep between both Chinese and Japanese cultures.

Among the ancient history of China, I admire ideas of twenty five century old Confucianism and Taoism^③ actively taught by Confucius (551–479B.C.), Mencius (372B.C.–328B.C.) and Lao-Tse (604–531B.C.), rather better put, I am fond of them. I believe that their thoughts have been supporting the fundamental spiritual strata of Chinese people even in today’s communism nation. Today’s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on the other hand, is seemingly as a result of the Chinese’s ideology of communism; however, it is a little hard to take it representing the true mind of China. The system of order that those teachings brought among human relationships, bogged down through multi millennia history of rival warlords, is well worth practicing even today. When it comes to the Analects of Confucius^④, it has become the textbook of necessary fulfillment of intelligence and nurturing of a leader’s lofty competency. I can imagine hearing the two thousand five hundred year old Confucius saying, “Don’t offer what people don’t want” for my motto as a designer because it is teaching the essentials of design.

The basic driving force of China’s development today has doubtlessly rested on the Analects of Confucius with its base of diligence and sincerity. Although re-introducing Confucianism might be politically obstructing since a single political party governs the country, however its ideas surely reside at the core of people’s ethos. Above all, it is obvious that daily manners defining human relationships are revealed in basic of producing clothing, food and shelters. Confucius said that “perfect virtue,” “justice,” “courtesy,” “wisdom,” and “faith,” was to be sought for building order and discipline among people. Because it was hoped that all human surroundings are built under the suggestion of the perfect-virtue, justice, courtesy, wisdom and faith. And also humans can satisfactorily lead their secured and orderly lives only after their surroundings are facilitated with the maintained virtues.

The reason I favor this ethos is that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times are well imagined even for me, who lives today’s life. Even if it is compared to today’s human relationships and social engagement, quite the same context is often noticed. Actually and practically Samurai ethics, largely rested on the teaching of the Analects of both Confucius and Lao-Tse, had been practiced till the Meiji Restoration (1867)^⑤. The teachings

신들 이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노자 가르침에 대한 일본의 숭앙은 미학적 삶의 방식이라는 궁극 목표로 승화되었다. 불교는 6세기 일본에 유입되었는데, 노자와 장자(B.C. 370-300)의 가르침을 포용하여 장대한 정신우주를 창출했다. 인도에서 유래한 불교는 유토피아 우주관을 설법했다. 천황초차 부처에 고개를 숙이고 부처에 대한 경외심을 빌어 백성을 다스렸다. 불교는 신도^①, 유교, 도교를 병합함으로써 메이지유신(1868) 전까지 일본 정신영역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유기적 구조를 지닌 지적 창조가 재부상했고 세계에서 고유한 일본 유형의 창조적 엔티티가 생겨난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아시아적이라 부르려 한다.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선(禪)^②에 관심이 있다. 노자와 장자 가르침을 통해 일본에 들어 온 불교 종파 선교는 6세기 달마대사(Bohddidarma)가 중국에서 창시하였고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일본 불교 종파가 되었다. 그리고, 광대한 우주 관점을 기반으로 독특한 차 문화를 발전시켰다. 찻집의 예, 조정, 용기, 음식, 건축, 꽃꽂이, 향을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영원한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생각은 상당수의 정교한 일본 미학으로 이어졌다. 수 천년을 통해 전해져 온 신도(Shinto) 자연주의가 일본의 근본 문화 층을 형성했음은 굳이 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도의식은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행했기에 매우 민주적이었다. 이 현상을 예술의 대중화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현저히 아시아적인 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상인이자 다도의식 명인인 센 노 리큐(1522-91)^③가 한때 한국, 중국, 일본 특권층만 누렸던 몇 가지 예술형태를 통합하고 다도의식을 한층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대중화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세계가 그의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 신도는 그 양식이 기본과 순수상태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일본문화 층을 형성할 수 있었으리라. 이러한 융합은 전혀 다른 문화를 낳았고 결국 아시아 창조 능력의 폭을 한층 넓혀주었다.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외국 문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 땅에서 일본 고유의 문화로 거듭나게 된 것일까? 아시아의 창조적 방식이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인가? 이 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려 한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타고난 기질이 나타난다. 민족 역사, 문화, 사상을 타고난 기질로 생각할 때, 이 기질은 극한 상황에서 숨어있지 않고 모두 하나가 되어 밖으로 표출된다.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지역이 좋은 예다. 역사적 측면에서, 일본은 패전했고 일본 사람들 일상은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그리고, 궁극적인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생존은 생명

체로서 지닌 순수 본능이었다. 일반적으로 패자는 승자의 비위를 맞춘다는 말이 있지만,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온 정신문화를 그토록 빨리 버릴 수 있었을까? 이 상황을 생각하면, “패했지만 우리의 땅은 아직 완전하다”는 옛 말이 떠오른다. 일본인들은 길을 잃었고 그들의 정신은 백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얼마까지 않았고 점령군이 가져온 승자의 문화는 그 위용을 자랑하며 패자를 사로잡았다. 전쟁으로 인해 잠시 흐름이 끊겼던 일본 근대화는 다시 추진되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근대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150년 전, 메이지 정권은 일본이 도꾸가와 막부^④가 서민들에게 강요했던 봉건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아시아를 떠나 서구에 합류하라”는 전국 운동을 펼쳤다. 이 모토는 2차 세계대전 동안 겨울잠에 들어갔지만, 전쟁 후 다시 깨어나 일본 사회에 적극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때는 국가 차원의 모토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정서였을 뿐이었지만 말이다. 그 결과, 미국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외국문화 수입은 일본이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행해 온 일이었다. 중국 당나라(A.D. 618-907)와 수나라(A.D. 581-619) 시대 때 이미 일본은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내 그곳 문화를 배우도록 했을 정도다.

일본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서구 현대화를 대표하는 많은 것들을 엄청난 수준으로 모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산업은 이 제품들이 크기가 작고 설비도 부족한 일본 가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크기를 줄이고 일본인의 관습, 생활양식, 경제능력에 맞게 만들어야 했다. 산업화 된 생산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일본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한때 일본은 지로기(Zero)^⑤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를 생산했다. 고도로 정교한 기술을 채용한 지로기 또한 서구 현대화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일본은 미국 제품처럼 생겼지만 미국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가전제품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 생산 시스템을 사용해 해외에서 들여 온 다른 많은 제품을 국산화했다. 서구 문화의 일본화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제품들은 일종의 원조로 생각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이 생산한 제품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일본 조건에 맞게 고치는 일본의 지혜로움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움은 한국과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아시아의 소화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들은 과거에 그다지 강한 집착을 보이지 않았기에 전후 일본에서 일어났던 극적인 정치변화, 문화수입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었다. 수입된 문화는 그림 맞추기 퍼즐처럼 각 단편으로 나누어져 일본의 주요 문화 층에 안착하였다. 그 결과, 마치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 편안하게 일본 문화에 흡수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기술과 조형표현에 대한 일본의 관점은

of Analects presented the doctrine for a true gentleman's way that Samurais followed and kept the faith in the book. They took the teachings in the Analects as their ideals.

Japanese adoration on Lao-Tse's teaching had sublimated even to the ultimate goal of aesthetic way of human life. Buddhism came to Japan in the sixth century, having embraced even Lao-Tse, and Zhuang-Tse(370B.C.–300B.C), had created the great spiritual universe. Buddhism, originating in India, preached the idea of the universe as a utopia. Even an emperor kowtowed to and borrowed the awe of Buddha to govern people. Buddhism in Japan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s spiritual arena until the Meiji Restoration(1868) by amalgamating Shintoism®, Confucianism and Taoism. It was the very reemergence of the organic structure of intellectual creation, and became a rare Japanese-style creative entity. I would like to call this Asian.

I am interested in Zen®—above all, a Buddhism sect in Japan centered by the teachings of Lao-Tse and Zhuang-Tse, Zen was started by a priest Bohdidarma in sixth century China, which became a sector of Japanese Buddhism, and developed a distinctive culture of a tea ceremony under the broad minded view of the universe. Its idea of returning to a point in eternal nature, by consolidating the manners of tea-houses, landscape-planning, utensils, cuisine, architecture, flower arranging and scent arranging, had bore many sophisticated Japanese aesthetics. Needless to say that Shinto naturalism, descended through multi millennia, had made its fundamental cultural stratum. The tea ceremony was even very democratic, as it had become a popular practice of many people. The phenomena may be called as the popularization of art, and it is deemed to be remarkably Asiatic.

It is worth mentioning that Sen No Rikyu(1522–91)®, a trader and tea master, consolidated several kinds of art, once exclusive to limited society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made the tea ceremony more popular. His way has come to be understood worldwide these days. It is understood that Shintoism never alienated, not in the sense of accepting or not, continental born Confucianism, Taoism and Buddhism. Shintoism might become a fundamental cultural stratum because the sense was very basic and pure. It is meant that such amalgamation, had bore totally different culture, has widened the capability of Asian creativity. This can be defined so because Japan is a member of the Asian region. Namely it had contributed to form Asian culture. If it is so, what process had those foreign cultures come through toward becoming the unique culture on

Japanese soil? Did any Asian creative formula work for the process? Let me re-think it further.

Humans tend to reveal their born nature when they are in extreme conditions. When we take the history, culture and ideas of a race as their indigenous nature, one's nature once hidden away surfaces and expresses itself in a converged posture. The Pacific theater in World War II was the best example. Japanese were defeated and their daily lives were destroyed in a moment in terms of history, and a brand new era had emerged suddenly from the emptiness of the wreckage. Wanting to survive, it was pure instinct as a living being. Although it is usually said that the defeated fawns upon a conqueror, did people all too quickly discard century old spiritual culture though for survival? The situation reminded me of an old saying "Defeated but our homeland is still intact." Japanese were at a loss and their minds went blank.

*I can imagine
hearing the two thousand
five hundred year old
Confucius saying, "Don't
offer what people don't
want" for my motto
as a designer because it is
teaching the essentials
of design.*

일본 산업이 지역 동향과 토착 특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일본 산업은 현지성과 민족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컴팩트하면서 정밀한,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고품질 제품을 생산했다. 달마대사가 설법한 선 세계의 우주관, 즉 소우주에서 대우주를 보는 우주관이 잘 살아난 것이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와 일본인의 생활문화는 개선과 발전을 거듭했고 여기에 세계가 주목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엄청난 신기원을 이룬 것이다. 아울러 일본은 도대체 일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서구 관점에서는 아시아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다.

일본 문화는 오랜 역사동안 한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일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은 일본의 새로운 문화관점과 문화 접근법이 일본 고유성이 탄생한 근원인 한국과 중국 문화로 스며들어 안착하고 있다. 오늘날은 이처럼 서로 스타일을 주고받는 현상이 마치 해변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이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많은 지역 문화가 일본에 유입되어 함께 섞였다. 하지만 각 문화가 지닌 독특함은 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 고유의 신도가 근본적인 문화 층을 형성하고, 거기에 인도에서 시작해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에 유입된 불교, 유교, 도교가 안착하였다. 그 외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다른 많은 문화도 함께 안착했고, 각 문화가 지닌 독특함은 그대로 살아났다. 간단히 말해, 수많은 종류의 문화 단편이 하나로 융합된 것이다. 물론, 각 단편은 상황에 맞춰 최상의 방법으로 융합되었다. 하나 하나의 사건은 마치 별레가 천천히 기어가듯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사무라이 윤리 또한 하나의 미학으로 규정된다. 사무라이 윤리는 일본 사상과 유교 및 도교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사상이 융합된 것이며 수 세기 동안 사무라이 정권이 대중을 이끌 수 있도록 지지해 준 근본적인 인간 미학이었다. 사무라이에게는 많은 외국인이 미탐험 정신세계로 알고 있는 죽음의 미학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에 바탕을 둔 사무라이의 자기성취 윤리는 유교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인데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이러한 이해, 또는 더 많은 것에 대한 이해에 대해 만족했다.

오늘날까지 있었던 문화변화에 대해 기술해보았다. 일본의 전형적인 근본 문화 층은 조몽 시대(대략 B.C. 10,000-B.C. 300년)에서 시작해 야오이 시대(B.C. 200-A.D. 200)^⑥를 거치며

형성되었다. 필자는 일본이 상당히 조용하고 평온한 시대를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적 차원의 변천은 있었고 거기에 맞춰 일본인들의 삶과 생활양식도 천천히 변해왔다.

이런 현상은 아시아 전역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를 하나로 묶듯, 어떤 단편이나 세부도 전체의 일부로 파악하는 인간평등과 문화평등 관점이 아시아에 존재하는 것이다. 동시에, 아시아는 다양한 표현을 지니고 있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어쩌면, 아시아 문화가 곧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문화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e tea ceremony

was even very democratic

as it had become a popular

practice of many people.

The phenomena may be

called as the popularization

of art, and it is deemed to

be remarkably Asiatic.

But it was short-lived, and the conqueror's culture, brought by an occupation army, showed off and attracted the defeat. The modernization of Japan, briefly discontinued by the war, had started again. Severe winter had passed and modernization had begun to bud. A hundred fifty years passed, the Meiji Era in Japan, a restored regime tried to make the nation get out of its feudal stagnation that Tokugawa Shogunate[®] had imposed on the people, and heavily promoted a nationwide motto "Leave Asia join the West." The motto, which had been dormant during World War II, awoke and became active again in post war Japanese society, though it was just peoples' ethos and no longer a national promotion. So that America was no longer the enemy. The skill of importing foreign culture was a time honored specialty of the Japanese long since the era of the Tang(618-907A.D) and Sui(581-619A.D) in China to where Japan officially sent scholarship students.

Many things like so-called home appliances represented Western modernization, such as the refrigerator, washing machine and vacuum cleaner, were copied vigorously. However, soon Japanese industries realized that the appliances would not fit small sized and poorly facilitated Japanese housing and the industries had to scale them down, applicable to Japanese customs, lifestyle and economic capacity. They were quite confident to make products using industrialized production methods. Japan once produced world-class fighter planes like Zero[®]. Its technology was highly sophisticated. It was in fact also influenced by Western modernization. Japanese made home appliances to look like US made, but did not fit for use in the US. The all production systems applied here could be used to domesticate many products from abroad. It was rather the Japanization of the Western culture. It was almost deemed as a kind of original style. Their conducts were the results of wisdom of adapting anything they wanted to fit into Japanese conditions. And the same might be seen in Korea and China, too. It is likely called as an Asiatic talent of digestive adaptation.

Japanese showed almost no resistance, not too strongly being attached to there past, to the post war drastic political regime change and cultural importation. Imported culture was fragmented and settling in primary cultural stratum like a jigsaw puzzle, and building culture as if it had already been there for a long time. With such background, Japanese views on technology and formative expression gave its industries good awareness on regional trend and indigenous trait for the market of their products worldwide. The industries had produced compact enough, precise and

world, market worthy quality products by considering a locality and racial traits well. The view on the universe of Zen, preached by Bohdidarma, seeing a great universe in a small universe, was alive and well.

The trend had developed Japanese economy and its life culture, and attracted worldwide amazement. So it had created huge phenomena of quick recovery from the devastation of war, and it provided us with the best ever opportunity to think of what is Japan. It was also meant that what was Asia in terms of the West.(It also reflected what the West thought of Asia) Is this what the author is trying to say?

Japanese culture had been influenced by China and Korea for a long period. Especially from Korea, the distance to Japan is very close, so that the influence was extremely big. After having come through such a process, Japan's new cultural views and approaches now have been reciprocally settling in Chinese and Korean cultures from where there own uniqueness was born. Such mutual style interaction has taken place these days like the waves constantly lapping shores.

From a historical view, many regional cultures in Asia had come and mixed in Japan however the mixture did not cause the individual culture to lose its respective characteristics. On traditional Japanese culture with indigenous Shintoism as a fundamental cultural stratum, Buddhism from India via China and Korea, Confucianism and Taoism were introduced and settled along with many other cultural aspects from Asian regions, and respective distinctions were taken in. This was the very amalgamation of many kinds of cultural fragments. Of course the amalgamation of every fragment took place in the best applicable ways. Every event consumed a very long time, and the building process took on in a snail's speed.

Samurai ethics were also defined as aesthetics. The ethic was an amalgamation of Japanese thoughts and Asian thoughts centered by Confucianism and Taoism. These were fundamental human aesthetics that supported a Samurai regime to lead the masses for several centuries. They sure knew the aesthetics of death, known to many foreign viewers as an unexplored spiritual world, but on the other hand, their ethics of self-achievement centered by social obligation, what Confucianism taught, was somehow understood by foreign viewers, and many Japanese had satisfied themselves with such worldview.

So far I've described the cultural changes to date, in which typical Japanese fundamental cultural stratum had been nurtured since the Jomon era(about 10,000

그렇다면, 서구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한 마디로, 아시아에 존재하는 문화공존 개념은 서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시아식의 문화구축이나 공존이 서구에서는 자리잡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일본에서는 불교와 일반인이 섬기는 신이 종교적으로 공존한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일본과는 생각을 공유해도 서구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서구는 볼록렌즈 유형의 문화고 아시아는 오목렌즈 유형 문화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의 정체성은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함으로써 이상과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의 다양한 토착 문화가 수 천년의 역사를 통해 구축되고 잘 보존되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아시아는 서구의 현대 과학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이 과학과 기술을 각 지역 조건에 가장 적합하게 수정해 왔다.

아시아 또한 서적을 불사르고 학자를 처형하고 불교까지 버리는 등(진왕조, 시황제: B.C. 259-B.C. 210), 다양한 역사 문화적 변화를 겪어 왔지만 이 변화는 결국 유리잔 속의 소용돌이처럼 지역 내 혼돈으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혼돈이 끝나면 문화는 다시 축적되고 평온하게 상황에 적응해 나갔다. 지금은 아시아가 오랫동안 문화를 쌓아온 그 방식 그대로 서구 현대화를 꾸준히 흡수하는 시대다.

분명, 아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굳건하고 명확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럽은 제도 및 통화 통일을 통해 유럽연합 제국 탄생을 기대해왔다. 아프리카연합 또한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북미와 남미에는 이런 유형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지도력 아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 아시아가 하나의 연합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 그렇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ASEAN은 EU와 다소 다른, 일종의 연구 위원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는 긴 역사를 통해 눈부신 자산을 축적해왔다. 세계 60억 인구 중 30억이 아시아인이다. 아시아는 서구 양식 자체가 될 필요가 없다.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시아의 과거에서 이어져 미래로 나아가는 연장선을 숙고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유교의 '완벽한 미덕'을 핵심으로, 서구의 영원한 '사랑'과 같은 석가모니의 '연민', '조화'로 구성된다. 이슬람 또한 종교적 사랑 관점이 아시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체성의 힘은 모든 것을 포용함으로써 결국 사람을 구하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폭 넓고 선명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포용함으로써 말이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관대한 태도가 바로 아시아의 민주주의요 아시아의 정체성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ndustries

had produced compact

enough, precise and world

market worthy quality

products by considering a

locality and racial traits

well. The view on the

universe of Zen, preached

by Bohdidarma, seeing

a great universè in

a small universe, were

well alive.

B.C.–300B.C.) through Yayoi era(200B.C.–A.D. 200)¹⁰. I assume that Japan had been coming through a fairly gentle and placatory period, however there had been partial national level vicissitudes and Japanese people had lived by accordingly and slowly adapting their lifestyles.

The same might be seen all around Asian regions. The perspective based on the consensus of equality of race and culture that understands any piece or detail to be a partial of a bigger whole is present in Asia, and such viewpoint acts as a tolerating tying knot. Their expressions, however, have many variations to our pleasure. Asian culture may also mean that the culture is to please people, so to speak.

On the other hand, how had their western counterparts been living their lives? In a word, the perception of cultural co-existence seen in Asia is hardly found in the West. Asian way of construction or co-existence of culture may face a hurdle in the West. In Japan, even religious ideas that co-exist of Buddha and deities are found and China and Korea may share the idea with Japan but never with the West. Western culture can be defined as convex style and Asian culture can be defined as concave style.

In this sense, an Asian identity is probably defined as achieving ideals or goals to live by embracing everything without alienating one another. What has backed up this condition is that diverse cultures indigenous to the respective regions have been built up through several millennia of various histories and gently preserved as well. Asia has made good use of modern Western science and technology, but Asia has modified them to fit respective regional conditions.

While Asia, too, experienced historical cultural vicissitudes such as burning books and executing scholars and abandoning Buddhism(Qin Dynasty, Shi Huang di: 259B.C.–210B.C.), but it ended up with rather intra regional turmoil like a whirlpool in a glass, and as soon as the turmoil was over cultures soon began accumulating calmly and peacefully. And now we are in an era in where Asia seems to be steadily digesting western modernization in the same way Asian culture developed.

It is obvious that Asians now have started to feel a sort of sturdy and clear(confident) presence in the world. Europe has been looking forward to giving birth to the EU Empire by having a common currency and constitution. African Union, too, are resolute for realizing an important matter. Though the North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have formed no such union, they have been active under the de facto US leadership. In this sense, when one asks if Asia is a union, we are not

merely able to assert so. ASEAN seems to be a little different from EU on the other hand, that it is characteristically a 'research committee.'

Asia has a long history. Of the six billion people in the world, three billion are Asian. There is no necessity to adapt a Western style at all. A remaining task for Asians is contemplating the continuation of the past leading to future. For that we will need an Asian identity. The identity may consist of "perfect virtue" from Confucianism as a core, "compassion" from Sakyamuni, like eternal "love" from the West and "harmony" from Japan. Even the Islamic perspective of religious 'love' may well be Asian-ized. The power of the identity may lead to save people by embracing everything. Embracing everything by seeing through broad, rich and loving eyes. The generous posture embracing everything may be defined as the Asian democracy and identity.

This characteristic may be formulated into the Asian Design Mind as follows:

1.
The spirit that loves material things.
Material things have their spirits.
Let us have a world in which human and material things appreciate each other.
2.
The spirit that makes the best of material things.
Material things have their awareness.
Let us give form for their hidden intention.
3.
The spirit that respects material things.
Material things have their time.
Let us share history with them.
4.
The spirit that is moved by material things.
Material things have their stories.
Let us have a scenario to interact with them.
5.
The spirit that jubilates the life of material things.
Material things have their life.
Let us have jubilation to live life together with them.
6.
The spirit that seeks beauty of material things.
There is truth, good and beauty in design.
Let us pursue truth, create good and seek beauty.

아시아 디자인 마인드가 다음 특징을 지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물을 사랑하는 정신
사물도 영이 있다.
사람과 사물이 서로에게 감사하는 세계를 만들자
2.
사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정신
사물도 인식이 있다.
사물의 숨은 의도에 형태를 부여하자.
3.
사물을 존중하는 정신
사물도 시간이 있다.
사물과 역사를 공유하자.
4.
사물에게 감동 받는 정신
사물도 이야기가 있다.
사물과 상호 작용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자.
5.
사물의 삶을 환호하는 정신
사물도 삶이 있다.
사물과 함께 살아가는 환호를 느끼자.
6.
사물의 미를 추구하는 정신
디자인에는 선과 미와 진실이 있다.
진실을 갈망하고 선을 창출하며 미를 추구하자.

많은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아시아에 많은 소용돌이가 일기를 바란다. 그 소용돌이가 하나로 뭉치면 아시아의 바람이 일 것이다. 소용돌이는 멈추지 않는다. 소용돌이는 언제나 활력을 유지한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 정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걸음으로 보면 모두 똑같은 것 같지만 자체만의 고유한 표현을 지닌 아시아의 이상향이 100년 안에 부상하여 평화로운 이 땅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지도 모른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윤리와 상호작용에 세련되고 정교한 감성을 불어 넣음으로써, 불교에서 지향하는 이상향의 세계, 축복의 땅 (Skhavati)이 생겨날 수도 있다. 아시아의 정체성은 아시아의 정신 그 자체며, 이 정신을 지닌 조형표현이 바로 아시아의 디자

인이다. 그리고, 이 아시아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현지에 적합한 많은 버전이 분명 탄생할 것이다.

아시아를 구성하는 문화는 각 민족의 전통 문화와 관습을 소의 시키지 않았다. 각 지역 문화의 핵심은 상호간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융합을 통해 한층 더 밝은 빛을 발했다. 일본이 그 전형적인 예이며 한국 또한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지속적인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파란만장한 변화가 수 천년에 걸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민족을 찾았지만 이 변화는 유리잔 속의 소용돌이였고 아시아는 평온한 시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서구는 지난 두 세기에 걸쳐 소위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많은 아시아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아시아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고 적합한 부분만을 받아 들였다. 그리고, 서서히 새로운 아시아를 향해 나아왔다. 포괄적 시야를 지닌 이 과정 또한 매우 아시아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도는 강력한 식민정책 압박이 가해졌지만 수 천 년을 살며 지쳐온 생각과 고 유성을 지키며 새로운 인도를 향해 힘차게 걸어왔다.

아시아 국가들은 놀라운 탄력성을 바탕으로 이렇듯 훌륭하게 살아왔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필자는 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 온 아시아인은 부드럽고 온화한 민족이라는 점을 강력히 호소해 본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인은 서로에게 우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2천 년 하고도 몇 백년 전, 노자가 말했다. “이상적인 삶은 물과 같다. 자고로, 물이란 부드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만나는 모든 것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며 영원히 스며든다. 그리고, 물은 강하다.” ¹⁾

I hope Asia would absorb diverse cultures that would cause many whirls in the region. When the whirls are felt as one that may make the Asian wind. Whirls do not stagnate things. It has always invigorated. Korea, China and Japan. The era of refinement is approaching. Right now those cultures superficially are all alike, however, a utopia with the expression of their own may emerge in a hundred years, and may make a driving force for a peaceful earth. Skhavati, the Utopia in Buddhism, might be built by nurturing sophisticated sensibility in both ethics and interactions between nature and humans. Asian identity is the Asian spirit itself, and a formative expression of Asian design. And many local versions of the Asian design will be definitely born.

The culture that comprises Asia has not alienated traditional cultures and customs of respective peoples. A core of culture in respective regions seemed to emerge by dynamic and lasting amalgamation of one another. Not only is Japan a typical example, but also Korea might have come along a similar track. Although millennia of vicissitudes were brought to Asian peoples along with lasting cultural diversity, needless to mention China, Asia had stayed in a rather calm period with minor changes comparable to a whirlpool in a small glass.

From a historic viewpoint, through the last two centuries of intensive colonization by the West, under the name of so-called modernization, has taken place in many Asian regions. As a result, however, it has ended up taking in an adaptable part only, and the regions have been heading toward a new Asia. This process was also very Asian like and broad-minded. Especially India, where intensive pressure of a colonizing policy was imposed, a new India has been fervently heading toward their own ideas having come through several millennia.

Asian countries have survived so well with almost amazing resilience. What has been making them so well? What I would like to appeal loudly is that Asians are a gentle and amiable people that the regions have raised. That is why we, the Asians, live our amicable lives together. Lao-tse, a man from two thousand and several hundred years ago, said "the ideal life is just the same as the water, because the water is gentle, running from high to low and infinitely permeating by adapting itself to anything. Moreover, it is strong." ㊦

Bibliography

- ① Nitobe, Inazo. *Samurai Ethics and the Soul of Japan*. Dover Publishings, 2004.
- ② Habu, Junko. *Ancient Jomon of Japan, Case Studies in Early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③ Saito, Mokichi. *Red Lights shakko: Selected Tanka, Sequences from Shakko*. Purdue University Press, 1989.
- ④ Higginson, W.J. *The Haiku Handbook*. Kodansha International, 1989.
- ⑤ Nippon Gakujutsu Shinkokai. *The Manyoshu*.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 ⑥ Matsumoto, Shigeru. *Motoori Norinaga, 1730-1801*.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⑦ Roth, Harold D. *Original Tao: Inward Training And The foundations Of Taoist Mystic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
- ⑧ Lau, D.C. *Confucius: The Analects*. Chinese University Press, 1997.
- ⑨ Beasley, William G. *The Meiji Restor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2.
- ⑩ Picken, Stuart D. B. *Shinto. Japan's Spiritual Roots*. Kodansha America Inc., 1980.
- ⑪ Suzuki, Daisetz T. *Zen and Japanese Culture*. Bollingen Foundation, 1970.
- ⑫ Sen, Soshitsu. and V. Dixon Morris. *The Japanese Way of Tea: From Its Origins in China to Sen Riky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 ⑬ McOrmie, William. *The Opening Of Japan, 1853-1855: A Comparative Study of The American, British and Russian Campaigns To Tokugawa Shogunates*.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 ⑭ Mikes, Robert C. *Zero/ Combat & Development History of Japan's Legendary Mitsubishi A6m Zero Fighter*. Motorbooks International, 1994.
- ⑮ http://www.jref.com/culture/yayoi_period_era.shtml

Ekuon, Kenji. and David B Stewart. *The Aesthetics of the Japanese Lunchbox*. MIT Press, 1998.